

■ 光州日報 54년

호남 반세기 밝혀온 '민주의 횃불'

2003년 11월 대구그룹의 새 가족이 된 광주일보는 독자와 함께, 역사와 함께 호남의 반세기를 밝혀온 민주의 횃불이자 호남언론의 상징이다. 민족상잔의 전란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2년 이 지역 선각 언론인들에 의해 탄생한 광주일보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등 가시적 역할을 한 현대사를 구비 구비 헤쳐오면서 올곧은 필봉으로 민주언론의 금자탑을 세웠으며, 출판 경제 발전과 문화창달의 선봉에 서은 지방자치의 견인차이기도 하다.

광주일보의 뿌리가 되는 옛 전남일보는 전란의 와중인 1952년 2월 10일 창간했으며, 옛 전남매일신문은 4·19 직후인 1960년 9월 26일 태어났다. 이들 두 신문은 1980년 신군부의 강제 언론통제 조치에 따라 '광주일보'라는 제호로 다시 태어난다. 4월 20일은 전신인 전남일보가 법인설립 등기를 받은 날이다.

휴전회담을 창간호 1면 머리 기사로 보도한 전남일보는 창간 초기부터 이승만 독재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민주언론'의 출발을 선언한다. 1960년 4·19혁명 혁명 때는 광주지역 청년 학생들에 대한 발포 책임자 규명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저력을 보여준다.

유신독재가 정점에 달하던 1974년 10월 긴급조치 1호의 전국에서도, 전남일보 기자 41명은 언론자유실현을 결의하며 정권직필의 열정을 지켰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은 신군부의 강압에 의해 10일동안 신문발행이 중단되는 참담함을 겪는다. 두 신문은 6월 4일 속간호에서 '민주시민의금지' 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광주일보의 역사와 함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격동의 역사 올곧은 필봉으로 기록 지역경제 발전·문화창달의 견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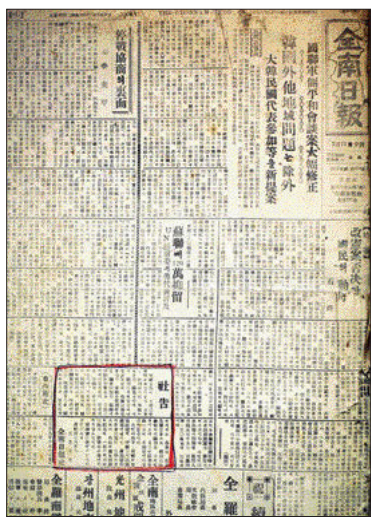
등산은 알고 있다'광주는 영원하다'는 기사를 통해 광주 시민들의 속내를 대변했고, 이후에도 5·18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앞장서왔다.

2000년대 들어 광주일보는 지역경제와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역문화 창달에 '울인'해왔다. 특히 2003년 11월 1일 새로운 경영진을 맞이한 광주일보는 그달 17일 제3대 허재호 회장이 취임하면서 '제2의 창간'을 선언한다.

2004년 1월 조간발행으로 전환하면서 '전라도의 힘'업그레이드 광주·전남'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호남 발전의 선봉장을 자임한다. 광산업대

상·자랑스런중기인상·여성경제인 포럼·농업포럼 등을 신설해 지역경제 활로를 모색하고, 선진문화도시 벤치마킹·무등문화상 제정을 통한 문화수도 광주 만들기 주력해왔다. 특히 21세기 핵심 경쟁력인 고급지식과 정보를 때맞춰 제공하기 위해 국내 신문업계 최초로 500명의 전문가를 인터넷 패널로 선정해 핫이슈에 대한 여론수렴과 분석을 시도하는 등 불변부담 시시비비의 전통을 인터넷 등 뉴미디어에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

'불편부담의 정론을 편다'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광주일보의 3대 사시(社是)는 오늘날 광주일보 전 구성원들에게 '광일 DNA'로 변변히 계승되고 있다. 권력비판, 진실추구, 소외계층 보호, 변화에 대한 도전 등이 '광일 DNA'의 핵심인자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1952년 전남일보 창간호.



1980년 통합된 광주일보.

있다. 권력비판, 진실추구, 소외계층 보호, 변화에 대한 도전 등이 '광일 DNA'의 핵심인자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54년 독자' 박선홍 문화재위원

"광주일보는 내 인생의 교과서"

"향토사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것도 54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광주일보를 읽어왔기 때문이죠. 광주일보에는 호남의 역사와 문화, 진솔한 삶의 향기가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박선홍(79) 광주시 문화재위원은 스물 일곱 살이던 1952년부터 지금까지 광주일보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광주일보를 읽어야 비로소 하루 일과가 시작될 만큼 광주일보는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였다는 회고다.

박 위원은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광주일보(당시에는 전남일보)가 창간됐고, 지역민들은 광주일보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다"고 기억했다. 그는 또 "광주일보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쟁 참상 및 복구 노력 등의 소식을 지역민들에게 알렸고 어려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지역사회의 등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쌈나팔'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기사였다"면서 "쌈나팔에 났다는 것 자체가 유명인사가 되는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일보는 내 인생의 교과서나 다름없습니다. 광주일보를 통해 지역의 소식과 역사를 배웠고, 이를 모아 내 지식을 쌓아 갔으니까요."

박 위원은 광주상공회의소에 재직하는 40년 동안 광주일보를 모았었다. 이를 1년 단위로 제본해 40년 동안 발행된 광주일보 제본판을 만든 것이다. 박 위원은



당시 호남지역의 생생한 근대사가 담긴 광주일보를 모아 놓으면 후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박 위원의 퇴임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광주일보 제본이 사라지고 말았다. 후임자들이 자료를 컴퓨터 등에 데이터베이스화 한 뒤 버렸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뒤늦게 광주일보 제본판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을 잃은 기분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신문 매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데 대해 "아무리 영상매체와 인터넷 매체 등이 발달했다고 해도 다양한 견해를 접하고 세상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신문을 꼭 읽어야 한다"면서 "신문은 다른 매체와 달리 삶의 체취가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사진=위정림기자 jrwi@



호남예술제는 지난 1956년 시작한 이후 단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해온 전국 최고의 종합 예술제전이다.

'예술 인재의 산실' 호남예술제 51년

국내 정상급 예술가 배출

전국 최고 종합 예술제로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올해 51회 짝을 맞았다.

광주일보사의 전신인 전남일보사가 지역문화 창달 의지를 밑거름 삼아 지난

1956년에 창설한 호남예술제는 5·16, 5·18 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단 한차례도 거르지 않고 대회를 열어온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전이다.

첫해 대회였던 1956년에는 1천여명이 참가했다. 또 1970년 15회 대회 때 주부 백일장과 가요 콩쿠르 등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열린 오픈페스티벌에는 10만명의 인파가 운집했으며, 1980년 제 25회 대회 때 경연 참가자가 1만명을 넘어선 후 해마다 1만

3~4천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호남예술제는 2001년 46회 대회 때부터 문화장관부상을 신설, 전국대회로의 입지를 다졌으며 지난해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록 페스티벌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 올해는 논술과 유치부 대상 그리기 대회를 신설하고, 작문·미술 부문에 예·본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회를 거처간 사람은 53만여

명에 이르고 음악·무용·국악·미술·문학 등 각 분야에 걸쳐 정상급 예술가들을 배출했다.

음악쪽에서는 김남윤(한국예술종합학교) 김진숙(경희대), 김연호(호신대), 길예령(목포대), 정애련(전남대) 교수 등이 눈에 띈다. 무용 분야의 김미숙·임지형·박준희(조선대) 문영(국민대) 김화승(원광대), 김선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도 호남예술제를 통해 예술가로의 꿈을 키웠다.

그밖에 강연균·우재길·최성중·최영훈·배동환(미술), 양성우·국효문·고재중·곽재구·설재복(문학), 박종선·문명자(국악) 등도 호남예술제가 낳은 인물이다.

/김민기자 mekim@kwangju.co.kr



光州日報 창사 54週年을 祝賀합니다

열린우리黨 光州·全南道黨
國會議員 및 地域委員會 一同